

“작곡없는 저명한 지휘자가 많은 시대에서……”

이 상 현
대우건축연구소

벌써 2년이란 세월이 지난 얘기지만 “대우건축”을 끌고 나가던 홍순인 형이 돌아가시고 그 비운자리를 메꾸고 있을 당시, 후배 친구가 찾아와 물기를 “건축한다는게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대체 그 이유는 어디서 오는 것 일까요?”하는 픽 깔깔한 질문을 받은 일이 생각난다. 그때만 해도 다들 아끼던 사람을 잃은 안타까움과 서운함, 보상받을 수 없는 억울함같은 착잡한 심정 속에서 무엇이 그토록 그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수 밖에 없었는가 하는 의문에 건축작업의 고달픔을 그 답변으로 삼아야만 했었다.

며칠 전에도 제주있는 후배 한 친구의 부음에 접하고 또한번 크게 놀랐다. 그 역시 연일 계속되는 밤샘에 누적된 피로가 그를 쓰러트렸을 것이 틀림없다. 세상에는 직업도 여러가지여서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따를 줄 알지만, 우리가 택한 이 직업도 만만치 않은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리가 숙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집”이란 것은 그것을 사용할 대상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렇게 보면 대상없는 일이 어디 하나 있었는가. 의사면 환자가, 변호사는 피고가, 화가는 사물이, 교수면 학생이, 정치가는 민중이 그 대상일 것이다. 따라서 건축의 대상이 사용자라면 결국 그것은 우리 모두인 것이다. 그러나 건축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건축가와 건축주라는 관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 이 건축주라는 존

재가 꼭 사용자일수만은 없다.

건축가의 대상은 건축주다. 건축가와 건축주의 관계가 의사와 환자나 변호사와 피고와의 관계하고는 다른 점이 있다.

병든 환자가 의사를 찾을 때나 억울한 죄목으로 법정에서 선 피고가 변호사를 찾을 때의 상황과 부동산이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돈많은 건축주가 건축가를 찾는 상황이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전자의 사람들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 전문가의 존재란 절대적인 것이어서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딱 재주 있겠는가. 그러면 후자의 경우는 어떤가? 얼마든지 여유가 있다. 집 짓겠다는 소문만 내놓고 가만히 있어도 유능하다는 건축가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하고 저마다의 청사진을 펴 보이는 것이다. 또 쥐꼬리만한 현상금을 걸고 강도 아닌 모범안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러니 건축가는 항상 칼날만 쥐게되지 칼자루는 쥘 수 없다.

“건축가는 자본주의 노예로 타락하고 있다”라는 자성과 비판이 나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누구의 소개로 서울에서도 노른자에 일거리가 있어 계획에 손을 댄적이 있다. 물건하나 만들어 지나하고 꿈에만 부풀어 몇날 며칠 법석을 떨고 안을 내놓았지만 더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와 같은 경험을 갖

고 있는 사무실이 몇군데 더 되는 것 같았다. 같은 일하는 사람들간에 “개 씨뿌려 두세개 거두면 잘된 농사”라는 말이 꽤 보편화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다.

현상설계라는 것도 그렇다. 도대체가 꼭 하나만 필요한 설계안을 찾기 위해 그토록 수 많은 건축인들이 응모다 심사다 해서 수선을 떨어야 할 것인지. 다행히 당선작이 나오면 몰라도 어떤 때는 “당선작 없음”하는 맥 빠진 결론이라도 내릴 때에는 그동안 그 일에 쏟았던 그 엄청난 노력과 수고가 아무런 보답도 없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 이런 허무한 일의 유형이 다른 어디에 또 있겠는가. 병원에 찾아 온 환자가 의사가 내린 진단이 맞던 안맞던 진찰비 안내고 병원문을 나갈 수는 없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사건에 대한 몇마디 자문을 들으려도 설계사무소에서 건축관계 상담을 해주고 고객에게 댓가를 요구하는 데는 아직 보지 못했다. 그런건 고사하고 열심히 공들여 만든 계획이 무산되더라도 또 하나의 “헛수고”로 치부하고 속으로만 그 섭섭함을 달랜다. 사무소의 경영은 이런 데서 멍이 드는 것이다.

어쩌다 계약이라도 할 경우가 되면 으레 몇푼 안되는 설계비를 공돈이라도 나가는 듯이, 깎자고 덤비는 것이 대개 우리의 고객이다.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비 깎자고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깎아 주지도 않지만.

남의 집을 맡아서 꾸며준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지워지는 것인가? 어떤 일을 맡고나서 느끼는 기분은 그 일을 하게 되어서 신난 다던가 유쾌하다기 보다는 국민학교 때 선생님한테 숙제를 받고난 학생의 기분과 같아진다.

그것이 더구나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믿고 맡겨줬을 때는 맡겨준 사람의 기대에 실망을 줄 수 없다는 강박관념에 늘상 무엇이 쫓기는듯 초조하고 불안해 지는 것은 나쁜만의 느낌일 것인가?

대개의 경우 약속은 미리 정해지고 주어진 시간 내에 그와 내가 만족할 만한 안을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건축을 표출해 낸다는 것이 상상과 노력에 비해 나타나는 결과의 치졸함에 불만을 안 가져본 건축가는 없을 것이다. 하나의 안을 만들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고 또 남들이 해 놓은 여러 선행들을 반추해가며 머리 속에 떠다니는 어지러운 상념들을 종이에 옮겼다 지웠다 하기를 얼마나 해야 되는가!

주어진 시간 내에 내놔서 부끄럽지 않은 것을 만들라치면 요새같은 더위가 아니더라도 땀이 난다. 용히 잘 풀려나 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도 않을 때는 나같이 수양이 모자란 사람은 엉뚱한 데다 괜히 신경질이라도 부리고 싶어진다. 그러다가 약속한 시간에 내 맘에도 안드는 안을 들고 건축주를 만나야 할 때라도 있게 되면 이건 꼭 숙제 못하고 학교가는 국민학생 때의 기분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소산이 반드시 건축주의 바람과 일치될 수만은 없는 것이고 또 상황에 따른 조건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계획은 수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심지어는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만 할 경우도 생기는 것이다. 실상 이러한 요인들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를 알아차려야 하겠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이 완전할 리가 없다.

건축주는 자신이 제시했던 요구를

추가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한다. 건축법은 하나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부산물처럼 수시로 출현한다. 게다가 만 들어는 작자 자신도 더 좋은 생각이 안타깝게도 뒤늦게 떠오르면 주위에서 남이 말려도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한다.

우리가 거쳐야 할 관문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건축허가”, 듣기만 해도 소화 안되는 분들 여럿 계실 줄 안다. 요새야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고 싶지만 전에 어떤 사무소에서 설계는 다 하면서 허가는 다른 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도 본적이 있다. 그렇다고 위법건축물을 설계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허가 과정의 대면을 피하자는 것이다.

건축법의 정의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지만 시행자의 해석은 각 구청마다 시마다 같지만은 않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는 속담은 바로 이 경우를 두고 한 것 같아서 소홀히 생각했다가는 정말 큰코다친다.

순서는 바뀌었지만 심의라는게 또 있다. 미관지구의 미관심의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입지심의 등. 전에 미관지구에 3층건물을 심의에 회부시켰더니 입면의 차이가 2층과 3층이 다르다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잘 아시다시피 미관심의위원회의 심사위원은 주로 대학의 교수님들로 구성된다. 물론 작가와 평자간에 반드시 공통분모가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심의를 받는 쪽의 입장에서는 그 과정을 꺾이나 꺾고롭게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만약 재심이라도 받게 되면 시간과 노력의 출혈은 물론이고 건축사는 건축주로부터 신망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사히 이 과정을 겪고 허가가 나오면 감리라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감리란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시행되게 지도·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면에 혹시 누락된 것도 그때그때 적절히 보완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도 해나가는 설계업무의 연장이라고 하겠다.

이때 꼭 한번 나오는 얘기는 건축주와 감리비 문제로 시비를 가려야한다. 소위 법정감리와 사실감리(?)와의 차이점을 이해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더우기 작년부터는 소규모 건물에 한하여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없다는 기상천외하고도 해괴한 제도마저 생겨 대체 어찌자는 것인지 모르게만 들어 놓고 있다. 큰집은 잘해야 되고 작은집은 대충해도 된다는 논리는 아닐 것이다. 건축사의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한 자구책이란 말도 듣고 있지만 방법치곤 졸렬하다.

어쨌든 지금은 설계자 아닌 제3의 건축사가 줄자를 갖고 다니며 허가사항과의 이상유무를 감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건축행정사의 코미디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나라 건축문화의 창달이라는 대명제를 지고 사명감에 불타야 하는 건축사들이 오늘은 왜 줄자를 들고 다녀야 하는지 모를일이다.

더구나 버르고 버르다 모처럼 모처럼 내집을 꾸며보려는 순박한 건축주에게는 설계자에게 별도로 감리를 의뢰하게 되는 이중부담을 안겨준 결과가 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연히 번거롭게 하고 있다.

한때 고등고시보다 어렵다던 건축사 시험이 지금은 해마다 실시되고 있다. 1차 2차해서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사람은 장원급제한 것과 진배없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특별전형이란 제도를 두어 2급건축사나 건축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속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 전자에게는 기왕의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인 것 같고 후자의 경우에는 건축직 공무원의 이직을 막겠다는 취지였다고 하니 “건축사 면허증”은 장기근속자에게 주는 개근상이나 보너스의 의미가 물씬 풍긴다. 그것도 시행해 보니 5년 근속자가 건축사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앞으로는 7년으로 할까 속고 중이라고 한다. 건축사의 희소가치가 건축의 질을 향상시킨다고만은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풍토 속에서 권한은 남용될 수 있고 담보적이고도 고식적인 사고방식 속에 안주를 조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면허는 그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 영업허가증이 아닌 것이다. 혹자는 건축사면허만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없다고 착각하기도 하는 것 같다. 사무소라도 개설하면 사업하는 사람으로 둔갑되기도 한다.

전에 어느 관리 한분을 알게되어 얘기 중에 설계사무소를 한다는 것이 사업이라기 보다는 작품을 만드는 연구소라는, 나름대로의 솔직한 생각을 털어놓는 적이 있다. 이말이 듣는 사람에게는 꽤나 기이하게나 또는 역겹게 들렸는지 그후부터는 무슨 얘기 끝에는 “이소장은 사업하는게 아니고 작품을 하니까”라는 농담반 야유반의 말을 듣게 되면서 말한번 잘못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관에서 설계를 어느 사무소에 맡긴다는 것은 마치 대단한 이권이나 특혜를 주는 것이나 처럼 생각하는 풍조가 다분히 있다. 아마도 그것은 설계비라는 애물이 끼어 있어서일 것이다. 설계를 해도 설계비는 납품이 완전히 된 연후에나 찾을 수 있다.

용역비라는 것은 그 일을 진행에 나가는데 필요한 비용이 대부분인 것이다. 그것을 다 끝마쳐야 주는 것은 무슨 심사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관의 일을 경험해 본 사람이면 다 아는 것

이지만, 자기 돈 써가며 일하지 않을 수는 없다. 사무소에 돈이 귀하면 남의 돈이라도 빌려서 할 수 밖에 안 되리가 없는 것이다.

일이 크면 클수록 시간은 따라서 많이 소요된다. 몇달 혹은 1년씩 곤욕을 치루고 나서 금전적 문제를 정리해보면 남의돈 빌려쓴 이자가 꽤 큰몫을 차지하는데 놀란다. 그래도 우리네 건축인들은 그런 일이 있을 것만 같으면 너나 할것없이 관에 은근한 주파를 던지는 것이다.

한번은 제도관에서 뭘 좀 하고 있는 중에 누가 찾아와서 만나게 되었다. 그사람 대뜸 한다는 말이 “소장님도 제도를 하세요?” 하고 신기하다는 듯이 묻는다. “설계사무소 할려면 제도관에 앉아 있을 시간이 어디있어, 골프도 치고 술 먹으러 다니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지.”

이런 말이 흔히들 오간다. 충분히 수궁이 가는 경구다. 이런 것도 게을리 하다 보면 후회되는 일만 생긴다.

누군가는 건축가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견준 적이 있다. 이 역시 적절한 비유이다. 지휘자가 하나의 교향곡을 연주하자면 작곡가의 의도를 알아야 하고 각 연주자의 특성, 각 종류의

악기의 성질과 기능 등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는 원하는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처럼 건축가 역시 너무나 많은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자신이 직접 다할 수는 못할망정 알고는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휘자는 작곡가와 또 엄연히 다르다. 물론 작곡가가 지휘를 직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곡없는 저명한 지휘자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건축에서는 누가 작곡가를 할 것인가? 이 역시 건축가의 영역인 것이다. 그러니 제도관을 멀리 할 수만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할일은 참으로 많다.

또 요청되는 능력도 끝이 없다.

둘러보면 얼룩진 환경이 만연된 이 시대이지만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만 할일이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역경속에서도 뜻있는 사람들은 곳곳이 잘 들 해나가고 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밤을 도와가며 열심히 제도관 위에서 땀흘리는 동지들이 있을 것임을 생각할 때 우리의 존재를 다시한번 의식하게 된다.

国民精神教育 9代德目

— 떳떳한 韓国人 —

主人精神
名譽心
道德心

— 다함께 사는 보람 —

協同精神
使命感
遵法精神

나라와 겨레의
나아갈길

愛國心
反共精神
統一意志